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5. 6.(월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대광위 간선급행 버스체계과	담당자	- 과장 박진홍, 사무관 남희봉, 주무관 김만호 ☎ (044) 201-5115, 5117, 5119	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6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간선급행버스체계(BRT)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!

대광위, 연내 S-BRT 구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노선 2개 선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저비용·고효율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(BRT, Bus Rapid Transit) 보급화를 본격 추진한다.

○ 그간 서울, 부산,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BRT를 도입·운영 중이나,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축·운영됨에 따라 도입 당시 기대했던 속도나 정시성 등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.

* 광역BRT 4개 노선(114.5km), 도시BRT 19개 노선(150.5km) 운영중('18말 현재)

□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에서는 지자체, BRT 운영기관, 경찰, 연구기관 등으로 BRT 운영체계 개선 및 **Super-BRT*** (이하 S-BRT) 표준 지침(이하 가이드라인)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(이하 T/F)를 구성하여 지난 4.1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.

* 전용차량, 전용차로, 우선신호체계 등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RT

○ T/F에서는 우선 S-BRT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입·운영 중인 세종 BRT*와 청라-강서 BRT**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상의 문제점, 서비스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

* 세종BRT : 전용도로 설치 등 도로여건은 우수하나 우선신호체계 불비

** 청라-강서BRT : 독립된 차선을 운영중이나 잦은 교차로와 우선신호체계 불비

- 이를 위해 우선신호체계, 정류장, 전용차량, 환승시설 등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정성, 이용자 편의 등의 관점에서 실태를 면밀히 조사·분석하여 장·단기 개선과제를 발굴, 추진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BRT 점검결과,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**S-BRT 표준 가이드라인**을 연내 마련*하고 시범사업 2개를 선정, 추진할 계획이며,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**에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.

* (용역) 고급BRT 표준가이드라인마련('19.5~11월, 5월초 입찰공고예정)

** 남양주-왕숙지구 10km,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 8km

- 대광위 간선급행 버스체계과 박진홍 과장은 “**S-BRT 표준 가이드라인**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 적극 도입하고, 기존 도시에도 S-BRT 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는 BRT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**BRT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**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남희봉 사무관(☎ 044-201-5117) 및 김만호 주무관(☎ 044-201-51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정의) BRT는 전용차로, 우선통행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, 철도의 정시성 및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
 - 버스전용차로, 환승시설,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, 버스정보시스템(BIS), 버스운행관리시스템(BMS) 등으로 구성
 - * 근거 :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



< BRT 개념도 >



<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BRT >



< 세종시 BRT >

- (필요성) 기존의 도로·철도 중심의 SOC투자방식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급증하는 광역교통수요 대응 및 교통혼잡 해소에 한계
 - 저비용·고효율*의 대중교통 수단인 BRT의 적극 확대 필요

* 경전철과 비교시 수송용량은 85% 수준이나 사업비는 6.5%에 불과 (평균건설비) BRT 30억원/km, 경전철 460억원/km, 지하철 1000억원/km 수준